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업체 구하기 ‘진담’

민원 가능성 큰 공구...4차레 유찰 후 5번째 공고 인근 공구 업체에 추가 공사 요청·참여 권유까지

광주시가 그동안 4차레나 유찰된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공사 업체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때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관급 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업체들이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광주시가 ‘사정’을 하고 있는 듯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조달청(나라장터)은 지난 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와 10공구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8월23일 오전 10시까지다. 이는 4차레 유찰에 이어 5번째 공고다.

7공구는 전남대 주변, 10공구는 본촌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로가 좁고 지장물이나 주변 노후 건물이 많아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근 공구 공사 업체 등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입찰 참여 등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적자 예상에 공사비 증액 등 요구사항도 청구하는 등 공사에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근 공구 공사 업

체가 유찰 공구까지 맡거나 공사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오는 29일까지 적격성 심사 신청을 받고 8월23일 오전 11시 개찰할 예정이다.

공사 추정 금액은 7공구 1천728억9천300여만원, 10공구 1천295억3천200여만원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시정에서 월드컵경기장 등을 지나 광주역까지 17.06km,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대와 일곡·첨단·수완·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20.04km 구간이다.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 2단계 완공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면 전체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만큼 착공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근 공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만 선정된다면 2029년 개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경 기자



국고예산 심의 대응 전략회의의 전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창환 경제부지사 주재로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고예산 기재부 심의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전남의사회와 의료공백 대책 모색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사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고

려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김종현 부회장, 조생구 한사랑병원

장, 재갈재기 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 살리기 공동 대처 방안,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김 지사와 전남도의사회는 공공의료기관 시니어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정 기자

주철현, 민주 전남도당 위원장 단독 출마 가닥

김원이·조계원 의원 불출마로 합의 추대 가능성 높아

주철현(여수갑·재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이(목포·재선) 국회의원과 조계원(여수·초선) 국회의원이 모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주 의원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전남도당에 후보로 등록한 뒤 오전 11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남을 중심으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시스템 공천·체계적 선거 지원 ▲윤석열 정권 견제·호남민주정권 창출 ▲지방소멸위기 극복·자치분권 실현 ▲지구당 제도 부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 시범사업 발굴·지방선거 공평공약 체결 등이다.

주 의원은 “제22대 총선 민의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호남 중심 민주정권을 창출하려는 전남도민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지역 기업

부진 등 총체적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살리고 동시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해 민주당의 근거지라는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 출신인 주철현 의원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찰청 공안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주철현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고 지지한다”고 밝혔고, 조계원 의원도 “주철현 의원과는 여수 발전을 위한 공동 공약까지 발표했고 상생 차원에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8월4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와 함께 열릴 전남도당개원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주 의원이 단독 출마할 경우 ‘대의원 10%+관리당원 90%’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김재정 기자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 민형배

“비수도권 대표해 지역 요청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은 15일 “광주와 호남을 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간절한 바람들을 민주당에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자본, 권력, 예산 등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도 8명 중 7명이 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서울·경기 밖(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후보는 민형배 한 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광주와 호남은 물론, 대구 부산 충청 제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제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며 “꼭 당선돼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방의 요청을 민주당 안에서 실현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다.

선출직 당직에 도전해 당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당 지도부에 들어가 광주와 호남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드렸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지금 민주당에는 예리한 눈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광주다운 최고위원, 전세계 최고의 시민, 광주시민의 지혜와 열망을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관철시킬 용기와 재주를 가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하겠다”며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 기필코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경 기자

Worldwide Partner

PARIS 2024 공식 스폰서 안마의자

REAL PRO MAN1

파리 항공권 증정
대한민국 승리기원
EVENT

기간: 2024.06.28 ~ 2024.08.11

연례나 사행받는 안마의자

89년

선진안마기술인약계

4년 무상보증

(1년 + 3년)

1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 50만원 할인
- 20만원 상품권 + 무선 청소기 WDD91 증정

할인

50만원

상품권

20만원

2 MAN1 구매고객 추첨 증정

1등

파리 항공권

티켓 2매

1명

2등

헤어드라이어

EH-NOJ

10명

※이벤트 상세내용 www.panasonic.kr/event 참조

파나소닉 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